

## 코로나19이후 글로벌 ETF 자금 동향 및 특징

이은재 | 책임연구원 (3705-6226)

- [현황] ETF 투자자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순유입이 확대되어 구조적 성장세를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자산시장 내 ETF 시장의 중요도가 확대
  - **Flow** : 지난해 글로벌 ETF에 총 0.6조달러가 순유입되어 연간기준 최대 유입 규모를 기록. 올해 연초이후에도 견조한 유입세는 지속(1/1~2/10일 +0.15억달러, EPFR 기준)
  - **AUM** : '20년말 글로벌 ETF 운용자산은 자금 순유입과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5% 증가한 7.9조달러를 기록, 올해 들어서도(~2/10일) +2.7% 확대
- [주요 특징] ▲테마형·액티브 ETF를 통한 알파수익 추구 심화 ▲기관투자자 주도의 ESG ETF 고성장, 채권형 ETF 활용 증가 ▲발행사의 틈새 상품(SPAC-CLO ETF) 경쟁 등
  - **테마형·액티브 ETF 선호 심화** : 투자자들은 지난해 경제봉쇄에 따른 산업 양극화 등을 경험하면서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보다 테마형, 액티브 ETF 등 정교한 종목 선정을 통해 알파수익(시장초과수익) 전략을 추구하는 ETF를 선호
  - **ESG ETF 고성장** : ESG ETF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연기금,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의 책임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성장세를 지속
    - 지난해 ESG ETF에는 총 89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, 연말 AUM은 전년대비 +143% 증가한 2,183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10%이상 확대
  - **채권형 ETF 투자 확대** :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채권형 ETF 투자를 통한 수익추구 및 포트폴리오 유동성 관리 수요 역시 증가
  - **틈새 상품 경쟁** : 최근 들어 SPAC(기업인수목적회사) ETF, CLO(대출채권담보부증권) ETF, 비트코인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이 신규 출시
- [평가] 글로벌 ETF 산업은 성숙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증시 랠리, 미 ETF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상품 공급 다양화와 개인·기관의 견조한 투자 수요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. 다만, ETF 자금 성격의 변화(패시브→액티브), 투자자산의 다양화 등이 자산가격 및 자금 유출입 변동성에 미칠 영향에 유의

□ [현황] ETF 투자자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순유입이 확대되어 구조적 성장세를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자산시장 내 ETF 시장의 중요도가 확대

- **Fund Flow** : 지난해 글로벌 ETF에 총 0.6조달러가 순유입되어 연간기준 최대 유입 규모\*를 기록. '20.3월 소폭 유출(-31억달러) 후 4월부터 가파른 유입세가 재개되었으며, 올해 연초이후 유입세도 견조(EPFR 기준) \* 직전 최고는 '17년 +0.5조달러 순유입
  - 반면, 뮤추얼펀드는 지난해 3월 증시 급락 직후 월간 8,000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자금유출을 경험<그림 2>
- **AUM(Asset under management)** : '20년말 글로벌 ETF 운용자산은 자금 순유입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25% 증가한 7.9조달러를 기록, 올들어(~2/10일)+2.7% 확대
  - 현재 ETF 운용자산은 뮤추얼 펀드자산 규모(17조달러)의 48% 수준이며 증시 매매비중도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분석의 의미가 가중
- **자산군·권역별** : 지난해 주식형 및 채권형 ETF 모두 선진국(미국) 자산 위주로 순유입되었으며, 신흥국 주식형 ETF는 작년 순유출 후 올해 순유입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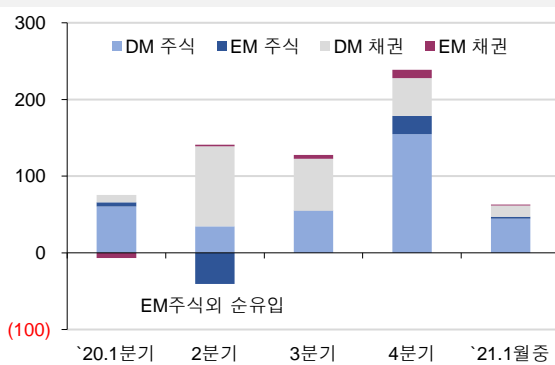
<표1> 글로벌 ETF 펀드플로우 및 AUM

(십억달러)

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 <sup>1)</sup>	AUM <sup>2)</sup>	유입강도(ytd) <sup>3)</sup>
주식	195	439	308	199	293	109	6,437	1.7%
선진국	174	381	245	181	304	99	5,763	1.7%
신흥국	21	58	63	18	(11)	10	673	1.5%
채권	102	142	105	212	242	32	1,493	2.1%
선진국	91	127	99	199	230	28	1,390	2.0%
신흥국	11	15	5	14	11	4	103	4.3%
기타 <sup>4)</sup>	42	17	(3)	36	86	10	369	2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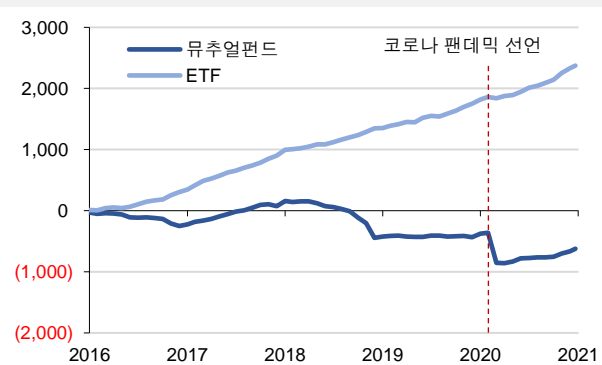
주: 1)YTD후(~2/10일), 2)2/10일 기준, 3)YTD(~2/10일) 누적 순유입/AUM, 4)혼합형, 대체투자 포함, 자료: EPFR

<그림1> '20년 이후 분기별 ETF 펀드플로우



주: 단위 십억달러, 자료: EPFR

<그림2> ETF vs 뮤추얼펀드 펀드플로우(주식, 채권)



주: 단위 십억달러, '16년이후 누적기준, 자료: EPFR

- 지난해 주식형 ETF보다 채권형 ETF의 순유입강도(4주누적 평균 기준)가 높았고

채권형 가운데 회사채 ETF에 대한 순유입 강도가 높았음

- 1)미 연준의 회사채 매입과 2)수익률 추구로 국채 외 회사채 ETF 매력도가 상승
- 올초이후 현재까지 신흥국 자산 ETF, 하이일드 ETF 등에 대한 자금유입이 지속되는 등 위험선호 기조는 지속

□ [주요 특징] △테마형·액티브 ETF를 통한 알파수익 추구 심화 △기관투자자 주도 ESG ETF 고성장, 채권형 ETF 활용 증가 △발행사의 틈새 상품(SPAC·CLO ETF) 경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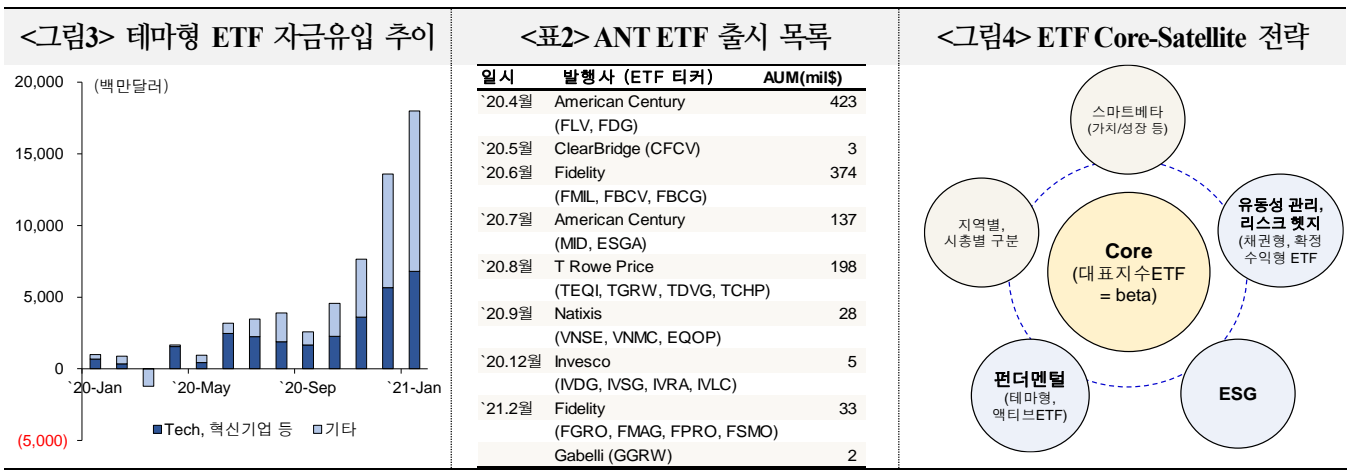
○ 테마형·액티브 ETF 선호 심화 : 투자자들은 코로나19와 경제봉쇄에 따른 산업 양극화 등을 경험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보다 테마형, 액티브 ETF 등 정교한 종목 선정을 통해 알파수익(시장초과수익) 전략을 추구하는 ETF를 선호

- ※ 테마형 ETF: 혁신기술, 환경, 소비 행동 변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추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ETF
- ※ 액티브 ETF :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아니라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뮤추얼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펀드. 현재 전체 ETF AUM 가운데 액티브 ETF 비중은 5% 미만

- (혁신·성장 테마) 코로나 이후 AI, 친환경, 우주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자금이 크게 쏠림<그림3>

- 지난해 테마형 ETF(미국 상장)에 대한 자금 순유입 가운데 Tech/커뮤니케이션 업종, AI, Robotics 등 혁신 성장 ETF 투자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%
- 혁신기업들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에 대한 인기도 크게 상승. 美 ETF 운용사 Ark Invest는 지난해 자사 액티브 ETF에 206억달러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동기간 ETF 운용사 가운데 AUM 최고 증가세를 기록(yoy +1,007%)

- (새로운 액티브 ETF) '20년중 규제가 완화된 액티브 ETF(ANT)\*가 출시. 현재까지 9개 운용사가 24개 ANT ETF를 운용하고 있으며, 향후 뮤추얼펀드



주: 미국 상장 ETF, 자료: Bloomberg

자료: Bloomberg

주: 파란색=신규 성장분야, 자료: KCIF

운용사들의 액티브 ETF 전향 가속화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<sup>1</sup>

※ ANT(Active Non-Transparent) ETF : 기존 액티브 ETF 와 다르게 포트폴리오 내역 공개 대상을 한정하거나, 공개 내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완화로 펀드 운용역의 부담을 경감.

⇒ 올해 액티브, 테마형 ETF 등 비전통적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될 전망

○ **ESG ETF 고성장** : ESG ETF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연기금,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의 책임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성장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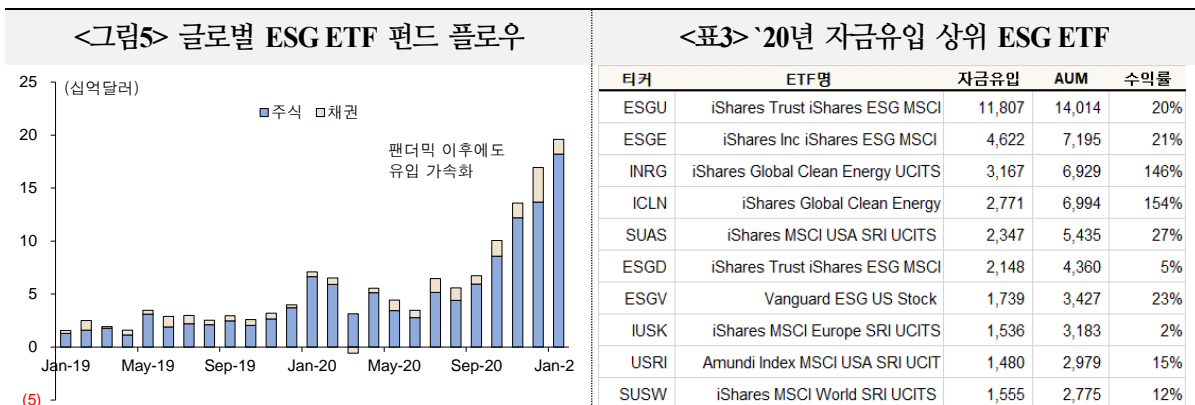
- (가파른 자금유입) 지난해 ESG ETF에는 총 89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, 연말 AUM은 전년비 +143% 증가한 2,183억달러를 기록했고 올들어 10%이상 확대

• 지난해 ESG ETF는 전체 ETF 신규 설정의 23%를 차지하는 등 성장이 두드러짐

- (기관 중심) 현재까지는 기관투자자 주도로 ESG ETF 투자자금이 유입. 또한 상위 5개 투자자 Imarinen(보험사), Envestnet, BofA, BlackRock, Bank of Italy가 ESG ETF 자산의 30%를 보유, 소수 투자자의 소유 집중이 높음(Bloomberg)

• 향후 밀레니얼, Z세대 등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ESG 투자도 확대될 소지(Citi)

- (정책 유인)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, 바이든 정부의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등 정책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ESG 중에서도 환경, 비화석연료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집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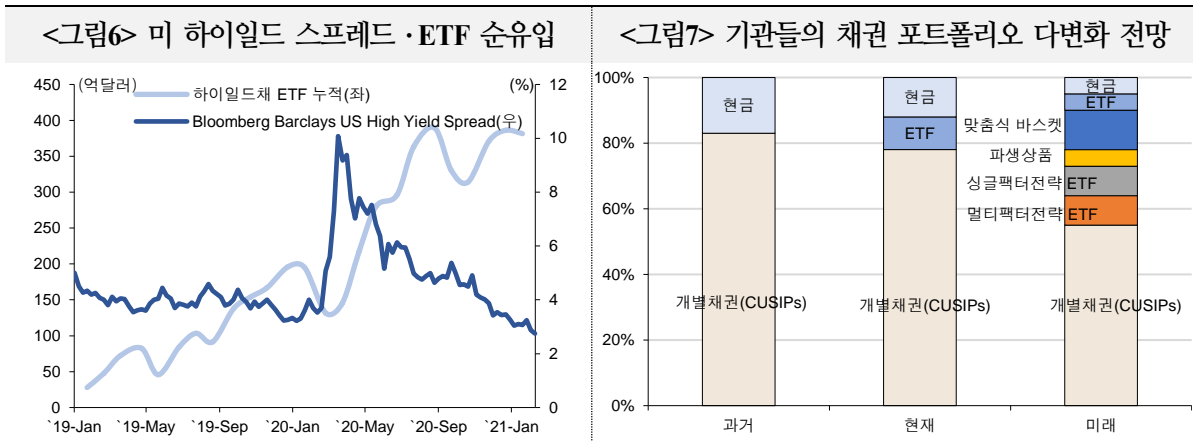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주: 금액단위 백만달러, 수익률은 '20년~'21년 1월말 기준  
자료: Bloomberg

○ **채권형 ETF 투자 확대** :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채권형 ETF 투자를 통한 수익추구 및 포트폴리오 유동성 관리 수요가 증가

<sup>1</sup>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“최근 美 ETF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”(20.1.17) 참고

- (고금리 자산 투자) 지난해 3월말 이후 저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환경이 이어지면서 투기등급채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ETF 인기가 상승
    - 지난해 3월 이후 최근까지 회사채 ETF(+800억달러), 하이일드채 ETF(+250억달러),뱅크론 ETF(+17억달러) 등에 투자자금이 유입(Bloomberg, 미국 상장 ETF 기준)
  - (매매수단 다변화) 지난해 3월 유동성 경색 상황 하에서 채권 ETF의 가격발견 기능이 부각. 이후 채권형 ETF의 거래량, AUM 증가가 동반되면서 포트폴리오 위험 및 유동성 분산 측면에서 이를 편입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가
    - '20.3월 유동성 불안 하에서도 회사채 ETF는 기초자산 가격, NAV보다 빠르게 실시간 시세 반영 거래를 가능케 하여 리스크관리에 유용한 점이 입증(Citi)
- ※ 연준은 3/23일 지난해 SMCCF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ETF 매입을 발표했으며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. 연준은 16개 미 회사채 ETF에 총 87억달러를 투입
- '20년 Invesco 설문에 의하면, 기관투자자의 98%가 향후 주식에서 채권으로 ETF 팩터투자전략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(vs '18년 응답률 62%)



주: ETF자금 '19년이후 누적, 자료: Bloomberg

자료: Citi

○ **틈새 상품 경쟁** : 최근 들어 SPAC(기업인수목적회사) ETF, CLO(대출채권담보부증권) ETF, 비트코인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이 출시

- 지난해 이후 SPAC ETF 3개 종목(SPAK,SPCX,SPXZ)이 신규 출시되었고, CLO 관련 ETF도 2개 종목(JAAA,AAA) 출시

■ [평가] 글로벌 ETF 산업은 성숙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증시 랠리, 미 ETF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상품 공급 다양화와 개인·기관의 견조한 투자 수요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. 다만, ETF 자금 성격의 변화(패시브→액티브), 투자자산의 다양화 등이 자산가격 및 자금 유출입 변동성에 미칠 영향에 유의

**최근 미 규제당국의 ETF 규제 완화**

- **Rule 6c-11** : '19.9월 SEC는 투자회사법(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) Rule 6c-11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ETF 설정과 환매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
  - 과거에는 ETF가 예외조항("exemptive relief")으로 적용되어 개별 펀드단위로 신청하면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됐으나, 법개정을 통해 ETF가 일부 조건들을 만족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
- **Rule 18f-4(proposed)** : '20.10월 SEC는 뮤추얼펀드, ETF, 사모펀드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펀드, 인버스펀드 설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를 제안

**<표4> '20년 이후 패시브 ETF 자금유입 상위 ETF**

ETF 명	티커	AUM <sup>1)</sup> (백만달러)	자금유입 <sup>2)</sup> (백만달러)	수익률	
				'20년	YTD(~2/19)
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	VTI	218,321	37,119	19.0%	5.8%
VANGUARD S&P500 ETF	VOO	198,257	33,307	16.2%	4.3%
VANGUARD TOTAL BOND MARKET	BND	70,822	21,295	5.2%	-2.2%
VANGUARD TOTAL INTL STOCK ETF	VXUS	42,575	17,413	8.6%	6.7%
VANGUARD INT-TERM CORPORATE ETF	VCIT	43,797	16,923	6.4%	-1.8%
INVESCO QQQ TRUST ETF	QQQ	158,715	15,164	47.6%	5.5%
ISHARES CORE U.S. AGGREGATE Bond ETF	AGG	86,210	15,040	5.2%	-2.0%
VANGUARD TOTAL INT BOND ETF	BNDX	39,023	14,329	3.5%	-2.0%
SPDR GOLD SHARES	GLD	64,745	13,268	24.8%	-6.4%
ISHARES CORE S&P 500 ETF	IVV	255,518	13,097	16.1%	4.3%

**<표5> '20년 이후 액티브 ETF 자금유입 상위 10**

ETF 명	티커	AUM <sup>1)</sup> (백만달러)	자금유입 <sup>2)</sup> (백만달러)	수익률	
				'20년	YTD(~2/19)
ARK INNOVATION ETF	ARKK	28,199	15,371	148.7%	22.6%
ARK GENOMIC REVOLUTION ETF	ARKG	12,702	9,005	178.2%	15.2%
JPMORGAN ULTRA-SHORT INCOME ETF	JPST	16,126	5,797	0.7%	0.0%
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	ARKW	9,565	5,625	154.1%	26.4%
ARK FINTECH INNOVATION ETF	ARKF	4,914	3,899	107.3%	26.0%
FIRST TRUST TCW OPP FIXED Income ETF	FIXD	5,010	3,796	5.6%	-1.5%
ARK AUTONOMOUS TECH & ROBOT	ARKQ	4,205	3,001	105.4%	27.0%
FIRST TRUST LOW DURATION OPP ETF	LMBS	6,886	2,965	-0.6%	0.2%
BLACKROCK ULTRA SHORT-TERM ETF	ICSH	5,298	2,678	0.4%	0.0%
JANUS HENDERSON SHORT DURAT ETF	VNLA	3,061	1,987	1.8%	-0.2%

주: 미국 상장 ETF 기준, 1) 2/19일 기준, 2) '20~'21년 현재 누적,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 
문의: 02-3705-6226 혹은 ejlee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